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5주】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8. 만유의 주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매인 데 없이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늘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높은 곳에 눈길을 주며 살고 싶지만, 세상사의 흐름에 따라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시어 우리의 가난한 생존마저 위협하는 유형무형의 횡포들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삶이 힘겹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려는 마음의 열망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가 사람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요구와 가르침을 삶으로 번역하는 기쁨을 늘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31. 시편142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정숙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1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함께

성경봉독 I. 마9:35-38 인도자

II. 갈4:12-16 조항범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긍휼의 일꾼 김재흥 목사

II. 오, 복된 약함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56. 성자의 귀한 몸	다함께
봉 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전심을 다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잘 돌보고 가꾸라고 맡겨주신 세상을 망가뜨린 죄가 크지만, 이제는 일어나 아름다운 세상을 열기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웃들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생각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1월 동호회 모임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박운양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준우 목사	권미정 집사 한상익 장로	인도자 장혜숙 권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홍순구	박규석	박혜경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이호원	김근중	안길상	최숙화	강순배

피스 메이커의 가장 큰 적

절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는 주변에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한아름 안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는 처음에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토론하거나 판단할 대상이 없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지만, 그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점차 나 자신의 새로운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방어할 필요도, 숨길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 없이 그 앞에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피스 메이커를 통해,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분의 사랑을 함께 경축하는 데 기초한 새로운 차원의 대화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심판을 다 맡기신(요5:22을 보라) 예수께는 심판의 다른 이름이 자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계속 이어져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일상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다른 이들을 판단해야 하는 무거운 짐 없이 살아가도 좋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자유로이 경청하고 바라보고 돌보며,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빨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면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나는 일종의 모든 인류 가족이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지구 전체로 그 범위가 확장됨을 느꼈습니다. 진실로, 판단의 폭력을 거부하는 것은 내 형제자매로서 나와 삶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을 끌어안게 하는 피스 메이킹의 비폭력 속으로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피스 메이커로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사망의 권세가 우리 내면의 자아 속에서조차 활동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으로 이 권세를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은 사망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의 분투를 반추해 볼 때, 가장 힘겨운 분투 중 하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나 자신의 인격을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긍정 하는 것, 나 자신의 존재가 살아 있음을 경축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가치 없고, 쓸모 없으며 비열하기조차 한 인간임을 확신하려고 애쓰는, 내 마음속 깊이 숨겨진 악의 음성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 어두운 내면의 음성은 가족과 친구, 학생과 교사, 후원자와 지지자들이 나에게 찬사를 쏟아부을 때, 때때로 너무나 강력해집니다. “그래,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해. 그들은 내 내면의 추한 꼴을 볼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인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이 찬사들을 금세 거두어 버릴 거야.” 이런 자기 혐오적 목소리는 아마도 피스 메이커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 자살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목소리입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거부, 자기 연민 또는 죄책으로 마비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되었음을 믿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도전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거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새롭고 불길한 과제로 우리를 이끌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책에 집착할지도 모릅니다. 저항은 피스 메이킹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저항자의 거부는 그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르러 자기 증오라는 치명적인 힘을 직면하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종종 내가 너무도 주저하는 피스 메이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용서받은 자, 두려울 것이 없어 진정으로 진실을 자유로이 말하고 평화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악과 사망의 사악한 권세는 나 자신이 내 활동의 목적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믿도록 유혹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기만하고 변호하며, 심지어 자멸합니다. 항상 내게 주어진 은혜를 선포하기를 주저하고,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열매인 평화를 낳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기를 망설입니다.

거룩한 식사

-황지우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발을 건져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흘기며 손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메게 한 것이다

몸에 한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짝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창원 정지은 배근수 김금순 박병구 오자영 이봉욱 이한림 김명희
 이광용 홍인수 임원민 임수연 조관행 홍선희 홍순구 안홍숙 정한구
 권미숙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고속이 김미순 김성자 김정섭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권혁순
 박혜경 김크크 문문금석 배부례 박병구 송의섭 송임회 이갑재 이희곤
 김영한 전영자 정두리 황경순

감사헌금:

박병구 김희은 왕성환 강순배 김현미 김현진 오선영 안길상 이형숙
 박지은 박혜경 하재두 차영철 조순덕 백묘현 조재훈 오광자 무명4

캄보디아우물헌금: 임취성 최은미 강창원 임승동 안홍숙 친구들

100주년 기념사업헌금:

한상의 정영선 홍순구 무명1 (100주년 헌금 누계 : 123,60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송임회	조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정복순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곽혜자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조병주	박옥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이인섭	김경수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숙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야외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교회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윤정화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진경	임창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동호회로 모입니다.
2. **기획위원회** : 오늘 오후 1시부터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3. **예수 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소장: 김준우 목사)가 주최하는 제1회 예수 포럼이 내일(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4. **선교회** : 다음 주일 오후는 선교회별로 모여 일년을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인도자들께서는 각자 메시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보고서** : 각 부와 선교회는 일년 동안의 활동을 A4 한 장 이내로 정리하여 다음 주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절인 배추** : 강화 농촌선교훈련원에서 생산한 무농약 인증 배추를 절여서 판매합니다. 10kg에 15,000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시시오. 추것은 2kg에 9,000원이고 육것은 1kg에 15,000원입니다.
7. **신앙실천** : 하루에 한 번씩은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런 노력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합니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토요봉사(24일): 김애경 안정숙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임종우(결혼기념일) 배근수(결혼기념일)

< 새교우 소개>

2738 전월수 소속: 1여선교회

2739 김정선 소속: 8여선교회

2740 최용광 소속: 7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